

<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선생이 한 가지 깨닫기를, ‘부지런히 <육>도, <영>도 부활 시켜야 된다. 죽으면 안 되니, 빨리 살려야겠다.’ 함이었다.
2. 어제 약수샘을 보니, 물이 넘칠 때가 됐는데 70%만 차고 나머지는 안 찼다. 세밀하게 보니 한 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었다. 고로 금이 간 곳을 막으니, 물이 조금씩 차올랐다.이같이 <신앙>도 그러하다. <신앙>에 틈이 생기고, 흠이 있으면, 물이 새듯 하니 만족하게 안 된다. <새로운 부활 역사>를 이루는데 ‘믿음’ 이든, ‘사랑’ 이든, 깨져서 금이 간 것이 있으니,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히 채워야 된다.
3. <부활>에는 ‘두 가지’ 가 있다.<첫 번째 부활>은 ‘공생애 전의 부활, 육적인 부활’ 이고, <두 번째 부활>은 ‘영적인 부활’로서, 주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고, 그와 같이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다.
4. <신약의 부활>도 부활이지만, <성약의 부활>을 해야 완벽한 부활이다.
5. <구약인들>도 ‘하나님의 믿음’ 으로 부활을 했지만, ‘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은 부활’ 은 못 했다. <신약> 때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해야 ‘두 가지 부활’ 이 되는 것이다.
6. 사람은 <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>이 많다. <사람의 상체>와 <하

체> 두 가지가 있듯이, 의학적으로도 <외과>와 <내과>가 있듯이, ‘두 가지’를 해야 된다.

7. 성경에도 <짜>을 자세히 깨달으라고 했다. 못 깨달으면, ‘한 가지’만 하고 끝난다.

8. <섭리사>도 ‘두 가지 부활’이 있다. <전반기 부활>과 <후반기 부활>이다. 두 가지를 해야 완벽하다.

9. 가령 <집을 지은 것>은 ‘첫 번째 부활’과 같고, <집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>은 ‘두 번째 부활’과 같다.

10. <월명동 자연성전>도 선생이 나오기 전까지 ‘첫 번째 부활’을 해 놓았다. 그리고 선생이 나와서 인테리어를 함으로 ‘두 번째 부활’을 해 놓았다. 인테리어를 하면, <겉>과 <속>이 다르듯 완전히 다르다.

11. <하나님의 역사>도 ‘마지막 인테리어 같은 역사’가 곧 ‘성약, 신부 시대’다.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, ‘마지막 인테리어를 하는 역사’가 오기까지 그렇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. 그만큼 <신부로서 단장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>이 어렵다는 것이다.

12. <부활>이란 ‘변화시키는 것, 새롭게 만드는 것, 좋게 만드는 것,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것’이다. - 이것이 그리도 어렵다.

13. <몸을 만드는 것>도 그러하다. <선생>도 몸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. 만들어 놓으니, 이제 계속 뛰고, 달리고, 운동해도 숨이 안 가쁘다.
14. 지금은 ‘변화시키는 때, 새롭게 만드는 때, 좋게 만드는 때,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때’ 다. <육>도, <영>도 그러하다.
15. <신랑>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자기를 가꾸고, 만들고, 건강도 살피는 것이다. 그러면 좋게 변화되고, 부활된다.
16. <사랑>도 혼자서는 안 되고, ‘상대성 사랑’ 이어야 이루어지듯 이같이 <부활>도 ‘하나’ 만 살아서는 안 된다. <주의 육신>이 살아서 나왔으니, 이제 그 힘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‘영적’ 으로 살아서 뛰고 달려야 된다.
17. 살아나면, ‘신’ 이 된다.
18.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“<하나님의 말씀>을 받은 자는 ‘신’ 이 된다.” 했다. 지금은 <시대의 말씀>, <부활의 말씀>을 받아서 전해주니,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살아나고, ‘신’ 이 된다.
19. <부활의 역사>가 진행 중이니, 이때 꼭 뛰고 달려서 부활되어라.

20. 부활되면, ‘신’ 이 된다.

21. 부활되면, 행할 때마다 ‘표적’ 이 일어난다.

22. <시대의 부활>을 해야 된다.

23. <신이 되는 부활>을 해야 된다. - 이 부활은 지구가 생기고 처음 선포되는 부활이다.

24. 늘 하나님과 성령님을 찾고, 부르고, 좋아하고, 사랑하고, 모시는 삶을 살면, 절대 ‘하나님의 법’ 대로 부활이 된다.

25. 막연하게 해서는 부활이 안 된다. <이 시대>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선포하신 ‘절대적인 말씀’ 을 듣고,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해야 부활된다.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같이 안 하니, 하나님을 믿었으나 부활이 되지 않아 그 영들이 사망으로 간다. <시대 보낸 자의 손>을 거쳐야 된다. <그>가 만들어야 된다. <주>가 와서 말씀을 줘야 ‘근본적인 부활’ 이 된다.